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ISSN 2093-311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http://iit.kita.net)



# TRADE FOCUS

2019년 4호

##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2019년 3월

전략시장연구실 심윤섭 연구위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 CONTENTS

[요 약]	i
Ⅰ. 연구배경	01
Ⅱ. 주요 개방내용	04
1. 관세율 인하	
2. 외국인 투자	
3. 기타(FTZ 등)	
Ⅲ. 시사점	23

보고서 내용 문의처  
전략시장연구실 심윤섭 연구위원 (02-6000-5455, jens@kita.net)



최근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주요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개방을 통해 내수소비 진작, 산업 구조조정 촉진,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WTO 가입 이후 대외 무역이 급증하여 세계 1위 무역국으로 부상하는 등 개방에 의한 제도개혁과 경제 도약을 경험한 바 있다.

중국은 먼저 관세율 인하를 단행했다. 소비재와 원자재 등에 대한 최혜국(MFN)세율(HS 8단위 기준 3,252개) 인하, 소비재 중심으로 비교적 낮은 잠정세율(706개) 시행, 정보기술협정(ITA, 484개)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2,191개)에 따른 관련 품목의 관세 인하가 진행됐다. 또한 한중 FTA 발효 5년차에 따른 관세 인하가 시행되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 2018년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발표하여 인프라, 서비스 등 22개 항목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풀었다. 이로써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다만, 까다로운 심사, 자격조건 등의 국내절차는 현행과 동일하여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개방 조치의 실험장 역할을 하는 자유무역시험구에 하이난(海南)을 추가하고, 중외 합자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 허용 등 개방을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직구 허용품목 수 확대, 세제 혜택 상향 등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시주석이 직접 참석한 국제수입박람회에서는 중국 전역의 바이어를 동원하여 거대한 비즈니스 장을 제공하며 수입 실행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표명한 개방 확대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모든 WTO 회원국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MFN세율을 2018년 한 해 동안 전체 품목의 38.0%(3,252개 품목)에 대해 인하한 것은 의미가 크다. (\* 잠정세율은 한시적이고, FTA 등의 협정세율은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제한이 있음) 중국은 미국 등의 압력, 경제구조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금년에도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개방 확대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이다.

관세율 인하,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 등에 따라 중국의 수입단가 하락과 소비 증대가 수입시장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 인하에 따른 유망품목,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잠재력도 높아졌다. 또한, 관세 인하비용을 활용하여 홍보 확대 등 새로운 제품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시장규모와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특히 관광 등 유망분야의 개방도 기대된다. 다만, 현지 법률, 관행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선심성 수입 실천의 장인 국제수입박람회와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은 해외직구 시장도 우리의 수출을 높일 수 있는 기회요인이다.

한편, 중국의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한중 FTA 효과는 감소하게 되었다. 잠정세율 적용품목, 자동차/부품 MFN 인하품목, ITA 세율 인하품목 등 총 1,408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 비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중국의 개방 확대 추이를 보면서 추가적인 양허 가능분야를 발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국의 시장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우량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시장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면 중국시장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도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중국기업과의 협력과 공생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중국의 주요개방 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혜국(MFN)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수입관세 인하(2018. 7월, 218개)</li> <li>-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2018. 7월, 1,449개)</li> <li>- 일부 상품 수입관세 인하(2018. 11월, 1,585개)</li> <li>- 정보기술협정(ITA) 세율 인하 (2019년 7월, 484개)</li> </ul> </li> <li>▶ 잠정세율 시행 (2019. 1월, 706개)</li> <li>▶ 협정세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세율 인하(2018. 7월)</li> <li>- 한중 FTA(5년차) 세율 인하 (2019. 1월)</li> </ul> </li> </ul>
외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 시행(2018. 7월)</li> </ul>
자유무역시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확대 (2018. 7월)</li> <li>▶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지정 (2018. 10월)</li> <li>▶ 자유무역시험구 개방 확대(2018년 1월, 11월 등)</li> </ul>
해외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성화 조치(2019. 1월) : 허용품목 확대, 세제 혜택 증대 등</li> </ul>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11월 (1회), 2019. 11월(2회)</li> </ul>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기회요인〉
1. 중국 수입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인하,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 등 수입단가 하락 및 소비 확대</li> </ul>
2.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인하에 따른 유망품목, 소비재, 미충분쟁으로 인한 틈새시장 발굴 가능</li> </ul>
3. 관세 인하 비용의 효과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확대, 가격 인하, 품질 제고 등 새로운 제품전략 모색</li> <li>* MFN세율과 달리 협정세율(FTA, APTA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필요</li> </ul>
4. 관광 등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 여행사의 중국인 아웃바운드 업무 허용 기대(2018년 자유무역시험구내 허용) 등</li> </ul>
5. 국제수입박람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주석 중점사업으로 중국 전역에 홍보되고, 중국 및 글로벌 기업가 수 십만명 접촉 기회</li> </ul>
6. 해외직구 시장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품목 수 확대, 세제 혜택 증대 등 해외직구 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li> </ul>
7.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에 따른 추가 기회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제한 완화 등 중국의 계속되는 개방 추세 가운데 기회 발굴 가능성 제고</li> </ul>
8. 세계경제 안정 및 우리 수출 확대의 기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을 통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경제 안정과 우리 수출 확대를 위한 기본 전제조건</li> </ul>
〈위협요인〉
1. 한중 FTA 효과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관세율 인하로 한국만 누리는 한중 FTA 활용도 감소</li> <li>* 잠정세율 시행, 자동차/부품 MFN 인하 등의 품목 1,408개의 한중 FTA 활용율 21.5%</li> </ul>
2. 중국시장내 경쟁 치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우량 외자기업 진출 증가 및 기업간 경쟁 격화</li> </ul>
3. 더 강해진 중국기업과의 경쟁 직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력이 제고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중국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더욱 치열</li> </ul>



# 본 문



## I. 연구배경

### ■ 시진핑 주석은 최근 주요 연설에서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표명

- 미래 중국의 경제발전은 더욱 개방된 조건하에 진행...중국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고 점점 크게 열릴 것 (2018년 4월 보아오 포럼)
- 중국이 추진하는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은 멈추지 않아...향후 15년간 상품 30조 달러, 서비스 10조 달러 수입 (2018년 11월 수입박람회)
- 개방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양호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을 모색 (2018년 12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
- 개혁개방을 가장 축하하는 방법은 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것임 (2018년 12월 정협 신년 다과회)

### ■ 양회 등을 통해 주요정책의 일환으로 대외개방 추진을 발표

- 통관시간 단축 등 무역편리화, 투자 개방 및 절차 간소화 등 개방 확대를 9대 정책과제에 포함 (양회, 2018년 3월)
- 시장진입 규제 완화, 무역 확대 등 전면적인 대외개방을 7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앙경제공작회의, 2018년 12월)

#### <양회>

- ▶ 매년 3월 개최되는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칭. 당해년도 중국의 정치경제 운영 방침을 결정
- ▶ **9대 정책과제(2018년)** : ① 공급측 개혁 ② 혁신 강화 ③ 경제개혁 ④ 3대 중점과제 ⑤ 농촌 진흥 ⑥ 지역개발 ⑦ 소비확대/투자 촉진 ⑧ **개방 확대** ⑨ 민생개선

#### <중앙경제공작회의>

- ▶ 매년 12월 당정 최고 지도자가 참석, 당해년도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년도의 경제 운영 방향, 핵심정책 등을 결정
- ▶ **7대 중점과제(2019년)** : ① 제조업 질적 발전 ② 강력한 내수 구축 ③ 향촌진흥전략 ④ 지역 균형발전 ⑤ 경제시스템 개혁 ⑥ **전면적인 대외개방** ⑦ 민생개선

## ■ 대외개방을 통하여 소비 확대, 산업 구조조정 촉진, 안정적인 대외환경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

- 지나친 투자 중심 발전으로 인한 공급과잉, 대미 수출 의존도 심화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내수 소비 위주로 경제구조 전환 추진

\* 주요 소비품의 관세 인하 등을 통한 소비 진작, 관광객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의 전환 등

-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한 조립가공 산업 위주에서 기술혁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확대 추진

\* 외국인투자제한 완화, 자유무역시범지역 확대 등 외자기업 유치 및 경쟁 확대를 통한 자국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

- 무역규모 증가, 첨단산업 발전, 경제대국 부상 등에 따른 주변국과의 잦은 이해충돌과 선진국의 견제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대외관계 구축

\* 세계와 주변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기여 홍보, 국제수입박람회 등을 통한 선심성 수입 등

\* 중국은 세계 공동개방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수입 박람회 기조연설), 중국의 발전은 타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중국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개혁개방 40주년 기념연설)

- 중국은 과거 개방 확대를 통해 대내 개혁과 경제 도약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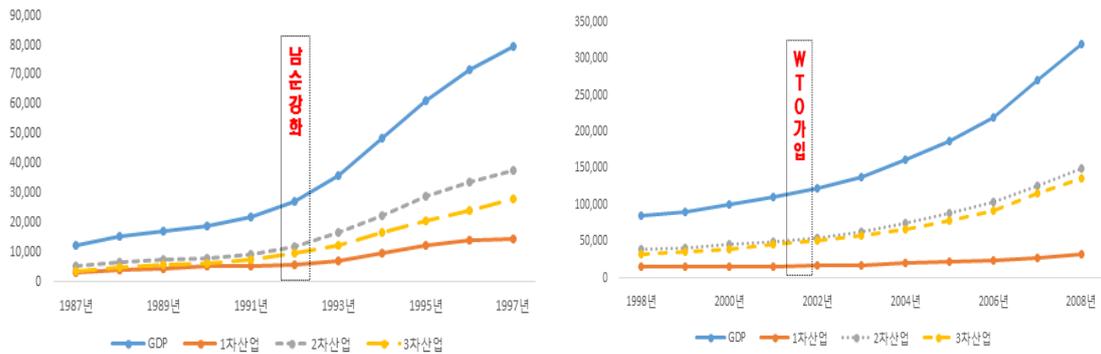
\* 1992년 남순강화 이후 제조업 중심으로, 2001년 WTO 가입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위주로 GDP가 가파르게 성장

\*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최혜국 대우 등을 상호인정하며 대외무역이 크게 증가, 수출(2009년)과 무역(2013년) 세계 1위로 도약. 서비스·투자 분야의 외자 진입장벽도 완화되면서 FDI 유입이 증대되고, 외자기업과의 경쟁으로 중국 산업 발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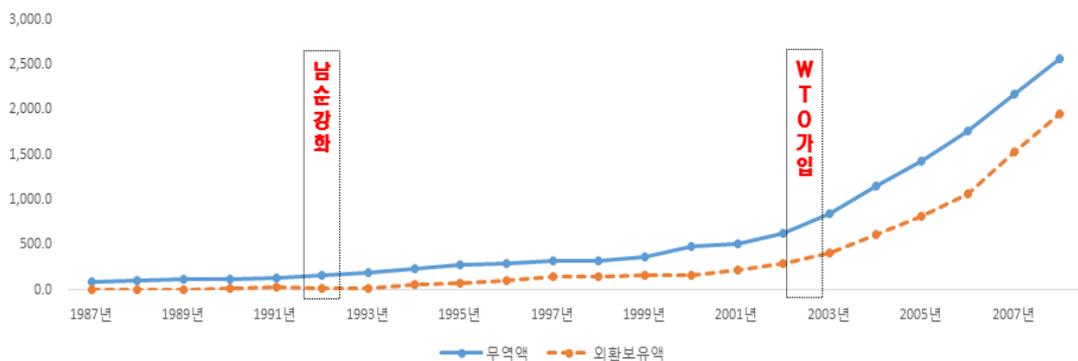
<중국 대외개방 확대의 주요 분수령>

- ▶ 개혁개방 선언(1978. 11월) : 중국식 시장경제를 최초로 도입하여 선부론(先富論), 경제 특구(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등을 활용한 중국 특유의 점진적인 개방을 시작
- ▶ 남순강화(1992. 1~2월) :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후퇴한 개혁개방 의지와 보수적인 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덩샤오핑이 상하이, 선전 등 남방지역을 순시하면서 개혁개방 확대를 독려
- ▶ WTO 가입(2001. 12월) : 미국(1999년 11월), 유럽연합(2000년 5월) 등 37개 회원국과 협상, WTO(2001년 11월)와 중국 전인대 비준을 거쳐 최종 가입. 본격적인 세계경제 편입과 제도적 개혁이 가속화

<남순강화, WTO가입 전후 중국의 GDP 추이(1987-2008년, 억 위안)>



<남순강화, WTO가입 전후 중국의 무역액과 외환보유액(1987-2008년, 십억 달러)>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Ⅱ. 주요 개방내용

### 1. 관세율 인하

- 중국은 최근 소비재, 자동차, 원자재 등에 대한 관세(MFN세율, 잠정관세, 협정 관세)를 인하

- ▶ 최혜국대우(MFN) 관세 : WTO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 잠정관세 : 특수 목적을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적용
- ▶ 협정관세 : 협정이나 관세조약 등을 통해 체결 당사국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 (F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 ① 잠정세율 시행 : 706개 품목<sup>1)</sup> (2018. 12/22 발표, 2019 1/1 시행)<sup>2)</sup>

- 중국은 매년 소비재 위주로 비교적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소비 확대, 상품 수급 조절, 관광객 해외구매의 국내 소비화 등을 촉진

\* 연도별 잠정세율 인하 품목 수 : 767개(2014년) → 749개(2015년) → 787개(2016년) → 822개(2017년) → 948개(2018년) → 706개(2019년)

- 올해는 식품, 화학품, 광학기기, 전자기기 등을 위주로 관세 인하

\* 영유아용 조제품(15% → 2% 또는 5%), 기타식품(6% → 5%), 글리세롤(13.3% → 6%) 등의 수출 확대 기대 ⇒ p13 <수출 확대 유망품목> 참조

-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국이 실질적인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품목 수는 전체의 34.7%인 245개임

\* 잠정세율 인하 품목(706개)에 대한 관세율(잠정세율, 한중FTA세율, APTA 세율 등) 비교시, 잠정세율이 가장 낮은 품목 수가 245개로 34.7%이며, 잠정세율과 한중 FTA 세율이 동일한 품목 수는 194개로 27.5%임

1) 중국 HS 8단위 기준임 (이하 같음)

2) 关于2019年进出口暂定税率等调整方案的通知 税委会 [2018] 65号  
([http://www.gov.cn/xinwen/2018-12/24/content\\_5351532.htm](http://www.gov.cn/xinwen/2018-12/24/content_5351532.htm))

<2019년 잠정세율 인하 품목(706개)에 대한 관세별 최저 세율 품목 수>

양허 관세	잠정 세율	한중 FTA	APTA 세율	잠정 = 한중FTA	FTA = APTA	잠정 = APTA	합계
최저세율 품목 수	245개	238개	20개	194개	7개	2개	706개
비중	34.7%	33.7%	2.8%	27.5%	1.0%	0.3%	100%

<관세율 비교 및 적용>

▶ 품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양한 관세율(잠정세율, 한중FTA세율, APTA 세율 등)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낮은) 세율 적용  
(아래 표에서 기타식품은 잠정세율을, 황산과 발연황산은 한중 FTA 세율 적용)

HS코드 (품목)	MFN세율	잠정세율	한중 FTA	APTA세율
19019000 (기타 식품)	10%	5%	6.6%	6%
28070000 (황산과 발연황산)	5%	1%	0%	비양허

2] 최혜국(MFN)세율 인하

- 2018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전체 품목(8,549개)의 38.0%에 해당하는 3,252개 품목의 세율을 자체적으로 인하 (\* ITA 품목 제외)

1]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수입관세 인하(2018. 5/22 발표, 7/1 시행)<sup>3)</sup>

- 자동차산업 발전,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해 완성차와 부품 21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 완성차(135개/4개) : 25%/20% → 15%
  - 부품 (79개) : 8/10/15/20/25% → 6%
- 관세 인하 이후 중국 완성차(178개 품목)의 평균 MFN관세율은 21.5%에서 15%로, 부품(97개 품목)은 10.2%에서 6%로 인하

3) 关于降低汽车整车及零部件进口关税的公告 税委会公告 [2018] 3号  
([http://www.gov.cn/xinwen/2018-05/22/content\\_5292720.htm](http://www.gov.cn/xinwen/2018-05/22/content_5292720.htm))

- 자동차 및 부품의 MFN 관세 인하 품목 중 한국이 실질적인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품목 수는 전체의 38.5%인 84개임

\* 자동차 및 부품 MFN 인하 품목(218개)에 대한 관세율 비교시,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APTA) 양허관세가 가장 낮은 품목 수가 전체의 56.9% (124개)로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APTA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

<2018년도 자동차 및 부품 인하 품목(218개)에 대한 양허관세별 최저 세율 품목 수>

세율	MFN	한중 FTA	APTA	합계
최저세율 품목 수	84개	10개	124개	218개
비중	38.5%	4.6%	56.9%	100%

## ②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2018. 5/30 발표, 7/1 시행)<sup>4)</sup>

- 소비 만족도 제고, 능동적인 개혁개방 추진 등을 위해 생활용품 위주로 1,449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

- 의류/신발/모자, 가구, 문화체육용품(894개) : 15.9% → 7.1%
- 가전제품(98개) : 20.5% → 8%
- 식음료(387개) : 15.2% → 6.9%
- 생활용품 및 의료/보건용품(70개) : 8.4% → 2.9%

- 관세 인하 이후 1,449개 품목의 평균 MFN관세율은 15.7%에서 6.9%로 하락

\* 입술용 화장품(10% → 5%), 보석제품(35% → 10%), 칫솔(15.7% → 8%) 등의 수출 확대 기대 ⇒ p12 <수출 확대 유망품목> 참조

## ③ 일부 상품 수입관세 인하 (2018. 9/30 발표, 11/1 시행)<sup>5)</sup>

- 기업원가 부담 완화, 소비수요 충족 등을 위해 1,585개 품목의 관세 인하

4) 关于降低日用消费品进口关税的公告 税委会公告 [2018] 4号  
([http://www.gov.cn/xinwen/2018-06/01/content\\_5295388.htm](http://www.gov.cn/xinwen/2018-06/01/content_5295388.htm))

5) 关于降低部分商品进口关税的公告 税委会公告 [2018] 9号  
([http://www.gov.cn/xinwen/2018-10/01/content\\_5327319.htm](http://www.gov.cn/xinwen/2018-10/01/content_5327319.htm))

- 방직품, 전자재, 강재 등(677개) : 11.5% → 8.4%
- 전기기계 설비(농기계, 측정기등)(396개) : 12.2% → 8.8%
- 자원류 및 가공품(비금속광물 등)(390개) : 6.6% → 5.4%
- 기타(122개) : 12.3% → 8.5%

- 관세 인하 이후 1,585개 평균 MFN세율은 10.5%에서 7.8%로, 중국 전체 평균 MFN세율은 9.8%에서 7.5%로 하락

\* 유리섬유(12% → 10%), 스테인레스강의 선(10% → 6%), 문창 등(18.7% → 9%)의 수출 확대 기대 ⇒ p12 수출 확대 유망품목 참조

#### ④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양허관세 인하

- 중국이 가입한 ITA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IT 관련 품목(484개) 대하여 2019. 7. 1부터 추가 관세 인하 시행

<중국의 ITA 제품 관세철폐 일정>

즉시철폐 (2016. 7월부터)	3년내 철폐 (2019. 6월까지)	5년내 철폐 (2021. 6월까지)	7년내 철폐 (2023. 6월까지)	합계
218개	113개	103개	50개	484개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 ▶ **개요** : WTO 주도로 IT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 ▶ **회원국** : 한국, 중국, EU, 일본, 미국, 필리핀, 태국, 호주 등 53개국
- ▶ **추진경과** : 1997년 7월 ITA I 이 발효되어 1998. 6월부터 품목 협상 진행, 2015년 12월 ITA II 타결로 총 201개 품목군(중국 HS 8단위 기준 484개 품목)에 대해 2016년 7월부터 단계적 관세 인하

- ITA 인하 품목(484개) 중 한국이 실질적으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품목은 전체의 72.3%인 350개임

\* ITA 인하 품목(484개)에 대한 양허관세 비교시, ITA 세율이 가장 낮은 품목이 전체의 72.3%를 차지하며, 한중FTA 양허관세가 가장 낮은 품목 수는 55개로 11.4%임

<ITA 협정품목(484개)에 대한 양허관세별 최저 세율 품목 수>

양허 관세	ITA 세율	한중 FTA	APTA 세율	ITA = 한중FTA	ITA = APTA	APTA= 한중FTA	합계
최저 세율 품목 수	350개	55개	28개	39개	11개	1개	484개
비중	72.3%	11.4%	5.8%	8.0%	2.3%	0.2%	100

\* ITA세율은 2019. 7. 1 시행 기준임

### ③ 협정세율 인하

- 다자간 협정, FTA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

#### ①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양허관세 인하

- 중국은 2002년부터 가입하여 한국, 인도 등 5개국에 대해 2018년 7월부터 2,191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 양허

\* 중국의 양허품목 수 : 1,697개(2006. 9월~) → 2,191개(2018. 7월~)

\* 기타 신발류(10% → 5%), 남성 면 셔츠(6% → 3%), 기타 낚시용품(6% → 3.9%) 등의 수출 확대 기대 ⇒ p14 <수출 확대 유망품목> 참조

<APTA 국가별 양허품목 수 (2018. 7월 이후)>

국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양허 품목 수	2,797개	<b>2,191개</b>	3,142개	598개	585개	999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 ▶ 개요 :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 확대를 위해 1975년 방콕협정으로 시작하여 2006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개명
- ▶ 회원국 :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 몽골(가입절차 진행중)
- ▶ 추진경과 : 협정 발효('76) 이후 3차례의 관세 인하를 진행, 제4라운드가 2017년 1월 서명되고,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

라운드	일자	주요내용
제1라운드	'76.6.17	- 방콕협정 발효(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제2라운드	'90.7.1	- '85~'90년(협상기간 6년)
제3라운드	'06.9.1	- '01.10~'05.11월(협상기간 4년) - 중국 신규 회원 가입('02.1.1)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제4라운드	'18.7.1	- '07.10~'16.9월(협상기간 9년) - 몽골 APTA 회원국 가입 신청('09.12월)

## ② 한중 FTA

### ■ 발효 5년차 관세 인하 (2015년 12월 발효)

- 올해 1,679개(HS 8단위 기준) 품목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4,225개 품목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

\* 경직물(2%→0%), 강력사 직물(2%→0%), 기타 알루미늄의 선(1.6%→0%) 등의 수출 확대 기대 ⇒ p13 <수출 확대 유망품목> 참조

<한-중 FTA 관세양허 수준>

품목군	한국 양허		중국 양허	
	품목수(개)	비중	품목수(개)	비중
전체	12,232	100%	8,194	100%
즉시철폐	6,108	50%	1,649	20%
5년내	1,433	12%	1,679	20.5%
10년내	2,149	18%	2,518	31%
소계	9,690	79%	5,846	71%

자료 : 관세청

### ③ 기타 FTA

#### ■ 중국은 17건의 FTA를 타결, 13건은 협상중, 8건에 대해 추진 검토중

<중국의 FTA 추진 현황>

진행단계	상대국(지역)
타결 (17건)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 아이슬란드, 스위스, 한국, 호주, 조지아, 몰디브, 모리셔스
협상중 (13건)	몰도바, RCEP, GCC, 한중일, 스리랑카, 이스라엘, 노르웨이, 파키스탄(2단계), 뉴질랜드(업그레이드), 한국(2단계), 파나마, 팔레스타인, 페루(업그레이드)
추진 검토 (8건)	콜롬비아, 피지, 네팔, 파푸아뉴기니, 캐나다, 방글라데시, 내몽고, 스위스(업그레이드)

자료 : 중국자유무역구 서비스망(<http://fta.mofcom.gov.cn/>) 등

<최근 중국의 주요 관세 인하 현황>

시기	관세 종류	주요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li> <li>- 18. 5.22</li> <li>○ 시행</li> <li>- 18. 7.1</li> </ul>	MFN 관세	<p><b>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수입관세 인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자동차산업 발전 촉진, 소비 수요 충족</li> <li>▶ 품목 수 : 218개(HS 8단위)</li> <li>- 완성차(135개/4개) : 25%/20% → 15%</li> <li>- 부품(79개) : 8/10/15/20/25% → 6%</li> <li>* 완성차(178개) 평균세율 : 21.5%(3~25%) → 13.8%(143개 15%, 35개 12% 이하)</li> <li>* 부품(97개) 평균세율 : 10.2%(6~25%) → 6%(통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li> <li>- 18. 5.30</li> <li>○ 시행</li> <li>- 18. 7.1</li> </ul>	MFN 관세	<p><b>소비재 수입관세 인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생활소비 수요 충족, 능동적인 개방 추진</li> <li>▶ 품목 수 1,449개</li> <li>- 의류/신발, 가구, 문화체육용품(894개) : 15.9% → 7.1%</li> <li>- 가전제품(98개) : 20.5% → 8%</li> <li>- 식음료(387개) : 15.2% → 6.9%</li> <li>- 생활용품 및 의료/보건용품(70개) : 8.4% → 2.9%</li> <li>* 1,449개 품목 평균 관세율 : 15.7% → 6.9%</li> <li>* 일반 소비재의 70%, 수입액 380억달러 규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li> <li>- 18. 9.30</li> <li>○ 시행</li> <li>- 18. 11.1</li> </ul>	MFN 관세	<p><b>일부 상품 수입관세 인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기업부담 감소, 다양한 소비수요 충족 등</li> <li>▶ 품목 수 : 1,585개 (중국 전체 전체 품목 수의 19%)</li> <li>- 방직품, 전자재, 강재 등(677개) : 11.5% → 8.4%</li> <li>- 전기기계 설비(농기계, 측정기 등)(396개) : 12.2% → 8.8%</li> <li>- 자원류 및 가공품(비금속광물 등)(390개) : 6.6% → 5.4%</li> <li>- 기타(122개) : 12.3% → 8.5%</li> <li>* 1,585개 평균 관세율 : 10.5% → 7.8%</li> <li>* 중국 전체 평균 관세율 : 9.8% → 7.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li> <li>- 19. 7.1</li> </ul>	MFN	<p><b>정보기술협정(IT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수 : 484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li> <li>- 18. 12.22</li> <li>○ 시행</li> <li>- 19. 1.1</li> </ul>	잠정 관세	<p><b>2019년 잠정관세 인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수 : 706개</li> <li>- 의약 원료, 액정, 엔진류, 기저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li> <li>- 18. 7.1</li> </ul>	협정 관세	<p><b>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수 : 2,191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li> <li>- 19. 1.1</li> </ul>	협정 관세	<p><b>한중 FTA (발효 5년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수 : 1,679개(완전철폐), 4,225개(단계적 인하)</li> </ul>

자료 : 중국 재정부, 중국 언론(봉황망, 신화사 등) 종합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확대 유망 품목>

1 2018년 MFN 인하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명	MFN세율		기타 세율	2018 수출	
		변경 전	변경 후		금액	증감
190410	곡물과 그 조제 식료품	25	10	18.7	10	119.0
200830	감귤류 과실	20	5	13.7	20	23.9
300420	기타 의약품(항생물질 함유)	6	0	비양허	35	35.9
330410	입술용 화장품	10	5	비양허	29	27.4
330499	기타 기초 화장품류	6.5	1	5.2	1,956	37.9
630790	기타 방직제품	14	6	9.3	21	13.3
670490	기타 가발	25	8	18.7	2	9.3
691410	기타 도제품	24.5	15	18.3	1	938.4
711620	보석 또는 半보석 제품	35	10	비양허	5	193.1
732399	기타 철강 가정용품	20	7	13.3	8	27.4
821520	기타식기(포크, 스푼 등)	18	7	9	1	93.8
850650	리튬 일차전지	14	8	비양허	2	34.2
900410	선글라스	20	7	13.3	4	1.6
940490	기타 침구류	20	10	13.3	3	126.0
960321	칫솔	25	8	15.7	10	37.5
960621	플라스틱 단추	21	6	18.7	4	15.5
961380	기타 라이터	25	10	18.7	4	5.6
961800	마네킹 인형 등	21	10	15.7	1	61.1
441520	깔판류	7.5	6	비양허	2	90.0
480524	테스트라이너	7.5	6	비양허	5	77.6
481159	기타 피복한 종이와 판지	7.5	6	비양허	16	10.4
560122	인조섬유의 워딩과 제품	12	8	비양허	9	77.8
701952	유리섬유(폭이 30cm초과)	12	10	비양허	2	159.4
722300	스테인레스강의 선	10	6	비양허	33	14.2
761010	문, 창, 문지방 등	25	9	18.7	1	68.3
900150	기타 재료의 안경렌즈	20	7	10, 13.3	35	48.1

\* 기타세율은 한중FTA, APTA 등 적용 가능 양허세율 중에 가장 낮은 세율(이하 같음)

\* 중국 관세율표는 HS 8단위 기준이나, 위 표는 세계 공통인 6단위 기준으로서 6단위 품목 내에 다수의 8단위 품목이 존재하고 관세율도 각각 다를 수 있음(이하 같음)

## ② 잠정세율 적용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명	MFN 세율	잠정 세율	기타 세율	2018 수출	
					금액	증감
05051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10	2	5	6	158.3
152000	글리세롤(無가공)	20	6	13.3	4	59.3
190110	영유아, 어린이용 조제 식료품	15	2, 5	비양허	80	27.9
190190	기타식품	10	5	6	1	16.8
270730	크실올	6	2	4	118	14.7
271012	경질유와 조제품	5, 6, 9	0~5%	3.3 ~ 6	1,550	11.4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6.5	3	4.3	749	1.0
480700	겹붙인 종이와 판지	6	5	비양허	3	472.4
900410	선글라스	7	6	13.3	4	1.6

## ③ 한중 FTA 5년차 관세 인하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명	MFN 세율	한중 FTA	기타 세율	2018 수출	
					금액	증감
030391	어란(魚卵) 등	7	5	6.3	11	1.5
030487	냉동 다랑어	7	5	비양허	13	20.9
160414	조제한 다랑어	5	0	비양허	5	50.6
283324	황산니켈	5	0	2	1	62.5
340399	기타 윤활유 조제품	10	0	비양허	41	103.8
391740	연결구류	10	0	6.5	25	159.1
392321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	10	0	비양허	31	56.1
540710	강력사의 직물	8	0	비양허	26	35.7
580137	경직물	8	0	비양허	22	27.0
610910	면 티셔츠	6	0	3.9	36	26.1
760519	기타 알루미늄의 선	8	0	5.2	6	8.2
848390	날이 붙은 휠 등	8	0	비양허	107	20.9
853620	자동차단기	9	0	비양허	10	105.0
902129	기타 의치와 치과용품	4	0	2	90	28.5
902519	온도측정기 등	4.2	0	2.7	16	24.3

4 APTA 4차 라운드 관세 인하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명	MFN 세율	APTA 세율	기타 세율	2018 수출	
					금액	증감
030367	명태	7	3.5	5	4	140.8
170410	추잉껌	12	9.5	비양허	1	188.0
210120	차 추출물과 조제품 등	12	6	비양허	3	103.7
281512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	3.3	4	2	1,014
350699	기타 접착제	10	6.5	7.5	19	8.7
420232	플라스틱 시트, 섬유로 만든 지갑 등	10	6.5	10	5	66.6
420292	플라스틱 시트, 섬유로 만든 기타 제품	6	3.9	5	14	123.8
520852	날염한 평직물	8	5.2	7.5	2	83.4
610230	인조섬유의 여성 코트 등	8	5.2	8.7	3	83.6
611020	면의 저지 등	6	3.9	7	8	33.9
620193	인조섬유의 남성 코트 등	8	5.2	8.7	17	194.0
620213	인조섬유의 여성 코트 등	10	6.5	9.5	4	148.2
620343	합성섬유의 남성 수트 등	8, 12	5.2, 7.8	8.7	4	63.5
620463	합성섬유의 여성 바지 등	12	7.8	8.7	10	73.3
620520	남성 면 셔츠	6	3	8	2	39.6
620640	인조섬유의 여성 셔츠	8	5.2	8.7	6	27.7
621149	섬유의 스키슈트 등	6	3.9	8	12	135.5
640299	기타 신발류	10	5	18	28	232.7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10	5	18	11	242.7
711319	기타 귀금속 장식용품	8,10	5.2,6.5	13.3	3	31.0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	6	4.8	8	34	27.8
761699	기타 알루미늄 제품	8	5.2	7.5	80	18.6
821420	매니큐어/페디큐어 용구	7	4.6	9	3	13.2
844317	그라비아(gravure) 인쇄용 기계	10	6.5	11.7	8	248.6
852859	기타 모니터	10, 20	6.5, 13	19.5	6	124.5
853810	책상 등의 부분품	4.2,3.5	2.1,1.8	4.2,3.5	11	30.1
950790	기타 낚시용품	6	3.9	15.7	13	31.5
960330	붓(회화용, 화장용 등)	8	3.9~5.2	13.3, 18.7	2	36.0

## 2. 외국인 투자

■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 제한을 크게 완화 (2018. 6/28 발표, 7/28 시행)<sup>6)</sup>

- 외자유입 확대, 시장경쟁 촉진,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전면적인 개방 환경 조성  
경제 글로벌화를 기대

\* 고품질의 외자기업 유치는 제품(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뿐 아니라, 중국기업의 발전을 자극하는 메기효과도 있음. 개방 확대가 개혁, 혁신, 질적 발전 가속화, 경제 글로벌화 심화 발전을 촉진할 것임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 인터뷰, 신화사)

- 농업, 제조업, 자원, 유통, 서비스 등의 22개 항목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완화 ⇒ p18 <2018년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의 주요 개방내용> 참조

\* 투자 제한 완화 20개, 투자 금지 해제 2개,

\* (농업) 밀, 옥수수를 제외한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종자 생산

→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자원) 희토 채련 및 분리 → 합자/합작 제한 폐지

(자동차) 특수목적차/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 중국측 50% 이상 지분 제한 폐지

(인프라) 전력망 건설, 경영 →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항공기) 무인기, 경비행기 설계 및 제조 →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운송) 철도여객 운송회사 →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국제해상운송회사 → 합자/합작 제한 폐지

(금융) 중국상업은행에 대한 단일 외자 투자 → 외국 지분 한도 20% 폐지

(서비스) 측량제도 회사 →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 자동차, 금융 분야는 향후 단계적인 개방 일정을 공개, 관련 업계에 준비 기간을 주는 등 투명성 제고

\* 자동차는 3단계로 2022년에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완전 철폐

(신에너지차[2018년] → 상용차[2020년] → 승용차[2022년])

\* 금융은 2단계로 2021년에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완전 철폐

(은행[2018년] → 생보/증권/선물회사[2021년])

6)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商务部 令 第18号 新版外商投资准入负面清单  
([http://www.gov.cn/xinwen/2018-06/29/content\\_5301999.htm](http://www.gov.cn/xinwen/2018-06/29/content_5301999.htm))

- 네거티브 리스트에 기재된 4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

\* 진입 제한 항목 수가 2017년 63개에서 15개 감소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 개수 추이>

구분	2011년	2015년	2017년	2018년
투자 제한 항목	79개	38개	35개	21개
투자 금지 목록	39개	36개	28개	27개
합계	118개	74개	63개	48개

- 문화오락(9개), 기타 서비스/교육(8개), 교통운수/도매(8개)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미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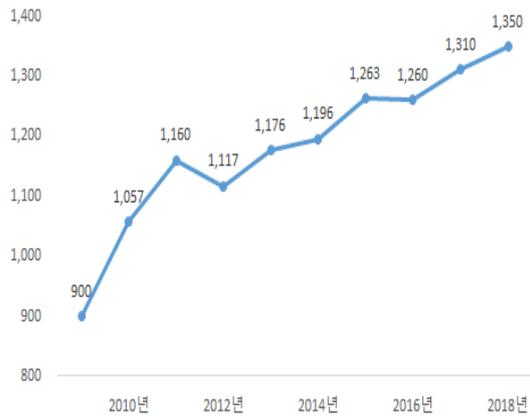
<2018년 외국인 투자 제한 항목>

구분	개수	항목
농업/자원(채굴)	8개	- 밀/옥수수 등의 종자 육성 - 수산물 어획 - 석유가스/천연가스, 텅스텐, 희토 등
제조/인프라	10개	- 인쇄, 약재, 자동차, 방송설비, 의료기구 등 - 원자력발전소, 도시가스 등
교통운수/도소매	8개	- 수상운송, 국내선박대리, 항공운송, 우정 등 - 연초 도소매
정보통신/금융	5개	- 통신회사, 인터넷 - 증권, 선물, 생명보험
기타 서비스/교육	8개	- 법률, 시장조사, 사회과학 연구, 측량 등 - 고등교육기구, 종교교육기구
문화/오락	9개	- 언론, 도서, 방송, 영화, 공연기획, 문예공연단체 등
<b>합계</b>	<b>48개</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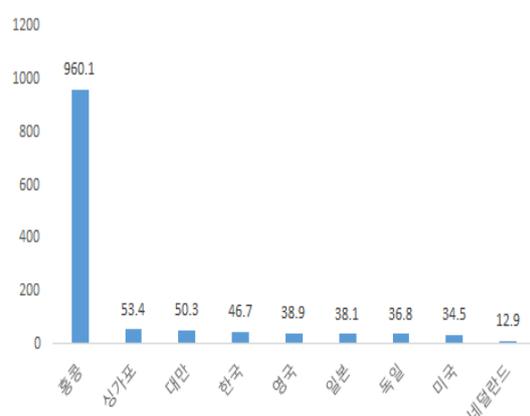
● 까다로운 심사, 자격조건 등의 국내절차는 현행과 동일하여 여전히 진입 장벽으로 작용

- \*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6조) 개방된 분야의 행정심사, 자격조건, 국가안전 등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 규정대로 집행
  - 자동차산업투자관리규정에 따라 가솔린 자동차 기업의 신규 설립이 금지됨 (2019. 1/10 시행)
- \*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한 제한은 개방되었지만, 배타적인 지원(보조금 지원 차별), 자의적인 심사(자격) 등을 통한 규제 가능
  -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사전 등록 및 심사를 득한 후에 방송 또는 방영 허용

<연도별 중국의 외자유치 금액(억 달러)>



<2018년 국가별 대중 투자금액(억 달러)>



자료 : 중국 국가통계청, 상무부

<참고 -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

-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라 개방
  - 1995년 6월 처음 발표 이후 총 7차례 개정(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 2017년)
  - 2018년부터 ‘외자진입 특별관리조치’로 명칭 개정
- ▶ 2017년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제 도입
  - 상하이 자유무역구(2013년)\*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

<2018년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의 주요 개방내용>

구분	분야	항목 (개방 내용)
제한 완화	농업	• 밀, 옥수수를 제외한 농작물 신품종 육성 및 종자 생산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자원	• 특수하고 희소한 석탄 탐사 및 개발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 흑연 탐사 및 개발 (외자 제한 폐지)
		• 희토 제련 및 분리 (합자/합작 제한 폐지), 텅스텐 (외자 제한 폐지)
	자동차	• 특수목적차, 신에너지자동차 (중국측 50% 이상 지분 제한 폐지) * 상용차에 대한 외자 제한 폐지 (2020) 승용차에 대한 외자 제한 폐지 (2022) 외자기업의 중국내 합자기업 수 2개 이하 제한 폐지(2022)
	선박	• 선박의 설계, 제조 및 수리(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항공기	• 간선/지선 비행기 설계/제조/수리, 3톤급 이상의 헬기 설계 및 제조, 지면/수면 효과 항공기의 제조, 무인기, 경비행기의 설계 및 제조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 범용 비행기 설계, 제조 및 수리 (합자/합작 제한 폐지)
	인프라	• 전력망 건설, 경영(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 철도 간선망 건설, 경영(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운송	• 철도여객 운송회사(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 국제해상운송회사 (합자/합작 제한 폐지)
		• 국제선박대리(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유통	• 벼, 밀, 옥수수 구매, 도매 (외자 제한 폐지)
• 주유소 건설, 경영 [동일 외국투자자가 30개 초과하는 지점, 체인점을 설립] (외자 제한 폐지)		
금융	• 중국상업은행에 대한 단일 외자 투자 (외자 지분 한도 20% 폐지), 중국상업은행에 대한 공동 외자 투자 (외자 지분 한도 25% 폐지)	
	• 생명보험회사 (외자 지분 한도 상향 50% → 51%, * 2021년 완전 폐지)	
	•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외자 지분 한도 상향 49% → 51%, * 2021년 완전 폐지)	
	• 선물회사 (외자 지분 한도 상향 50% → 51%, * 2021년 완전 폐지)	
서비스	• 측량제도회사 (중국측 다수 지분 제한 폐지)	
금지 해제	제조	• 무기탄약 제조 (외상 투자금지 해제)
	서비스	• 인터넷접속서비스 장소 (외상 투자금지 해제)

자료 : 중국 외상투자진입 제한목록 2017, 2018 비교

### 3. 기타

#### ■ 자유무역시험구(Free Trade Zone, FTZ)를 통한 개방 확대

- 자유무역시험구는 새로운 개방 조치의 효과와 충격을 시험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중국 특유의 점진적, 단계적 개방을 위한 실험장 역할

\*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 2013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 처음 도입되어 실험을 거친 후 2017년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

- 2013년 상하이에 처음 설치된 이후 확대되어 현재 12개의 자유무역 시험구 운영

- 2013년 1개(상하이), 2015년 3개(텐진, 광둥, 푸젠), 2017년 7개(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등), 2018년 1개(하이난)

<중국의 12개 자유무역시험구>

구분	개수	지역	출범
1기	1개	상하이(上海)	2013년 9월
2기	3개	텐진(天津), 광둥(廣東), 푸젠(福建)	2015년 4월
3기	7개	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시(陝西)	2017년 3월
4기	1개	하이난(海南)	2018년 10월

- 자유무역시험구 개방 확대 및 하이난(海南) 신규 지정

- 자유무역시험구 일시조정 관련 법규 발표 및 즉시 시행(2018. 1. 9)<sup>7)</sup>

\* 외자 독자 항공운송대리기업/창고 등의 기업설립 허용, 중외 합자 여행사의 중국인 아웃바운드 업무 허용(대만 제외), 외자 독자 주유소 설립/운영 허용 등

7) 关于在自由贸易试验区暂时调整有关行政法规

-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갱신(2018. 6/30 발표, 7/30 시행)<sup>8)</sup>

- \* 2017년판 네거티브 리스트의 제한 항목을 45개로 축소
  - 190개(2013. 9월) → 139개(2014.7월) → 122개(2015. 4월) → 95개(2017.6월) → 45개(2018. 7월)

- 하이난(海南)을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 +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2018. 10/16 시행)<sup>9)</sup>

- \* 관광 서비스와 하이테크 산업 위주로 발전시키고, 단계적으로 2035년까지 인력/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독립 무관세 지역인 전면적인 자유무역항 체제 확립
- \* 자유무역시험구 중 유일하게 지역 전체가 시험구로 지정

- 자유무역시험구 개혁혁신 심화 관련 조치 발표 (2018. 11/7)<sup>10)</sup>

- \* 좋은 투자환경 조성(자유무역구내 상표심사 창구 설치 지원 등),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자동차 병행수입 보세창구업무 지원), 금융혁신서비스(해외 증권투자 지원), 인력 부문 시범조치(인력중개 기구의 심사권한을 자유무역시험구에 부여) 등

## ■ 해외직구 활성화

●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 결정 (2018. 11/21 발표, 2019. 1/1 시행)<sup>11)</sup>

- \* 개방 확대, 대외무역 증대, 소비와 취업 확대 촉진을 위한 국경간 전자 상거래 등의 발전 가속화 필요가 추진 배경

- 해외직구 허용품목 수 확대 : 1,293개(2016. 4월~) → 1,321개(2019. 1월~)

- 세제 혜택 한도 금액 상향 조정

- \* 1회 거래한도 : 2,000위안 → 5,000위안
- \* 연간 거래한도 : 20,000위안 → 26,000위안
- \* 한도내 거래시 관세 면제, 증치세(부가세)와 소비세의 70%만 부과

8)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9) 关于印发中国(海南)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的通知

10) 关于支持自由贸易试验区深化改革创新若干措施的通知

11) 李克强主持召开国务院常务会议 决定延续和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政策并扩大适用范围等

- 상품 최초 수입시 수입허가 심사, 등록 요건 불필요

- 해외직구 시범도시 확대 : 15개 → 37개 (22개 도시 추가 지정)

- \* 시범도시 확대 : 베이징, 선양, 창춘, 하얼빈, 난징, 우한, 창사, 난닝, 시안, 쿤밍, 란저우, 웨이하이, 이우, 우시, 난창, 샤먼, 탕산 등
- \* 시범도시에서는 사무실, 창고 등 임대료 지원, 물류 보조금 지급, 통관 신고서 불필요 등의 혜택 제공

<중국의 해외직구 정책>

▶ 중국의 해외직구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외직구 규제화를 통해 일반무역과 동일화 시도(2016. 3/24 발표, 4/8 시행)<sup>12)</sup>

※ 규제화 이전의 해외직구 물품은 일종의 우편물로 간주하여 일반무역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은 행우세로 처리, 특히 세액이 50위안 이하일 경우 면세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행우세 대신 종합세 적용
- 해외직구 가능 품목(1,142개, HS 8단위) 지정
- 통관서류(통관신고서, 인증서 등) 요구

행우세	⇒	종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세액 50위안 이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면세혜택</li></ul></li><li>② 세액 50위안 이상<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우편세율적용</li><li>- 세율 : 10/20/30/50%</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거래한도내<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세 면세</li><li>- 소비세 70%, 증치세 70%</li></ul></li><li>② 거래한도 초과<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세 부과, 증치세 및 소비세 전액 부과 (일반무역과 동일)</li></ul></li></ul>

▶ 다만, 갑작스러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인증서 요건 등을 3차례 유예하고, 허용품목을 2차례에 걸쳐 확대

12) 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

## ■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 시진핑 주석이 2017년 5월 일대일로 고위급 포럼에서 개최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개최

<2018년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요(중국정부 발표 기준)>

- ▶ (기간/장소) 11. 5(월) ~ 10(토) /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센터
- ▶ (주최/주관) 상무부, 상해시정부 / 중국수입박람회, 국가회전중심(상해)
- ▶ (규모) 30만㎡ (상품관 24만㎡, 서비스관 3만㎡, 국가관 3만㎡)
- ▶ (참가기업) 3,600개 이상(일본, 한국, 미국 順) \*글로벌 500대 기업중 200개사
- ▶ (참가국 및 국제기구) 172개
- ▶ (바이어) 40만명 이상

- 자유무역, 대외개방, 수입확대에 대한 중국의 의지 표명 및 실행

\* 시주석은 개막식 연설을 통해 중국 개방정책의 표방이자 능동적인 시장개방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5대 개혁개방 조치도 발표

<시진핑 주석의 개막식 연설 주요내용>

- ▶ 수입박람회는 중국이 새롭고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정책의 표방이며, 능동적인 시장 개방 조치임
- ▶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발전을 추진하고, 개방적이고 글로벌한 세계경제 건설을 위한 액션
- ▶ 개방 확대를 위한 중국의 5대 개혁개방 조치
  - 수입 잠재력 확대, 외자기업의 시장진입 완화, 국제수준의 기업경영 환경 조성, 대외개방 확대, 다자 및 양자간 협력 추진

- 중국 전역의 바이어를 동원하여 일대일로 연선국과 무역적자국 등의 기업들에게 거대한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하여 수입 실행 능력 과시

\* 3,600개 이상의 외국기업과 40만명의 중국 바이어가 참가하여 578.3억달러의 거래 성사 (중국측 발표)

### Ⅲ. 시사점

#### ■ 평가 및 전망

- 중국은 최근 개방 확대 의지를 대외에 표명하고 관세율 인하, 외상투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이를 실천

- 특히, MFN세율 인하는 지속적이고 WTO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개방의 효과와 의미가 큼

\* 잠정세율은 한시적이고, FTA 등의 협정세율은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제한적인 개방임

#### <최근 중국의 주요개방 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혜국(MFN)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수입관세 인하(2018. 7월, 218개)</li> <li>-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2018. 7월, 1,449개)</li> <li>- 일부 상품 수입관세 인하(2018. 11월, 1,585개)</li> <li>- 정보기술협정(ITA) 세율 인하 (2019년 7월, 484개)</li> </ul> </li> <li>▶ 잠정세율 시행 (2019. 1월, 706개)</li> <li>▶ 협정세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세율 인하(2018. 7월)</li> <li>- 한중 FTA(5년차) 세율 인하 (2019. 1월)</li> </ul> </li> </ul>
외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 시행(2018. 7월)</li> </ul>
자유무역시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리스트 확대 (2018. 7월)</li> <li>▶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지정 (2018. 10월)</li> <li>▶ 자유무역시험구 개방 확대(2018년 1월, 11월 등)</li> </ul>
해외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성화 조치(2019. 1월) : 허용품목 확대, 세제 혜택 증대 등</li> </ul>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11월 (1회), 2019. 11월(2회)</li> </ul>

- 중국의 대외개방은 금년에도 계속될 전망
  -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 경제구조 개혁 등 대내외적인 필요성이 상존하며 2019년에도 외상 투자 개방 등이 확대될 전망
    - \* 중국은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에 기반, 개방을 통한 문제해결 신뢰
- 중국의 개방 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은 기회이자 위기
  - 개방을 통한 중국의 견실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조정은 세계경제 안정과 우리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우리기업과의 경쟁 격화

## ■ 기회요인 활용

- 중국의 수입시장 확대
  - 관세율 인하,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 등이 수입단가 하락 및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입시장이 확대될 전망
- 개방 확대에 따른 새로운 시장 수요 발굴
  - 매년 시행하는 잠정세율 품목 대부분이 소비재이며, MFN세율 인하 품목에도 소비재가 다수 포함되는 등 중국의 소비재 수입 확대 전망
    - \* 중국은 내수 소비 확대,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화 등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성장과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 중
  - 관세 인하에 따른 유망품목, 미중 분쟁으로 인한 틈새시장 활용
    - \* p 12~14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 확대 유망 품목> 참조
    - \* 미중 양국은 상호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상대국에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반도체, 통신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관련 제품의 대중 수출입을 통제

- 관세 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진출 전략 추진
  - 관세 인하 비용을 활용하여 제품 홍보 확대, 가격 인하, 품질 제고 등 새로운 제품전략을 모색
    - \*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비용 감소분에 대해 필요시 바이어와 수출단가 재협상
  - 한중FTA, APTA 등 혜택이 특정국가로 한정되는 협정세율 인하 품목은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활용한 보다 과감한 마케팅 추진
  
- 중국의 관세율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활용
  - 품목별로 가장 유리한(낮은) 세율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절차 진행
    - \*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MFN세율과 달리, 협정세율(FTA, APTA)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함
  - FTA세율은 매년 자동 인하되는 반면, APTA 등은 협상 타결시, 잠정세율, MFN세율 등은 중국정부 발표시 등 비정기적으로 인하됨
  
- 중국의 관광 등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직접진출을 신중하게 준비
  - 시장규모와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직접진출을 모색 하되, 법률, 관행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선행
    - \* 중국내 행정절차의 투명성, 법제화, 시장질서 등은 여전히 미흡하고 자격 요건, 심사 절차 등의 자의적인 운영 가능성에 대비
  - 관광, 문화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개방 추이를 주시하여 진출 준비
    - \* <중외 합자 여행사의 중국인 아웃바운드 업무>가 2018년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 허용되어 향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 기대
    - \* 중국 또는 외국기업과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리스크를 분담하고 현지화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 중국의 대외 선심성, 실험성 개방 조치를 활용

- 국제수입박람회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가하는 중국의 중점사업으로서 중국 전역에 홍보되고, 중국의 지역별 대표기업과 글로벌 기업 대표 수 십만 명을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호기
- 해외직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국의 주요 소비패턴으로 자리 잡았으며, 해외소비의 국내소비화를 위해 중국정부에서도 적극 권장 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높음
- 까다롭고 거대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실험장으로 자유무역구를 활용 하고, 신규 개방된 분야에 먼저 진출하는 선점효과 향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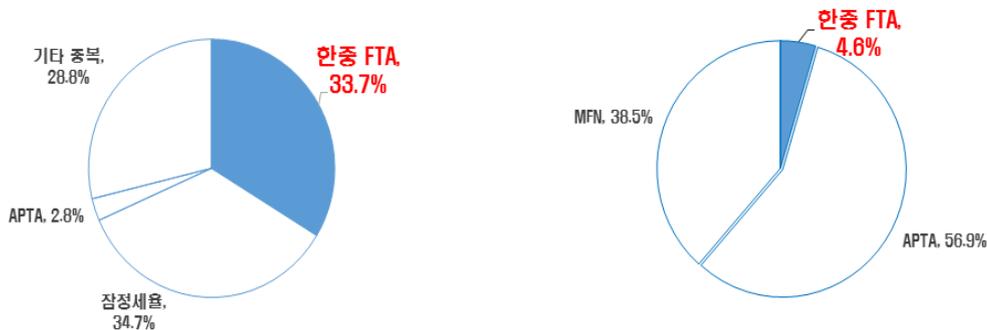
■ 위기 인식 및 대응

● 중국의 관세율 인하에 따라 한중 FTA 효과 감소

- 잠정세율, 각종 협정세율, MFN세율 등이 인하됨에 따라 한중 FTA를 통한 우리만의 배타적인 관세 혜택은 점차 축소

\* 잠정세율 시행 품목, 자동차 및 부품 MFN세율 인하 품목, ITA 협정세율 인하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 비율은 각각 33.7%, 4.6%, 11.4%이며, 이들 1,408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 비율은 21.5%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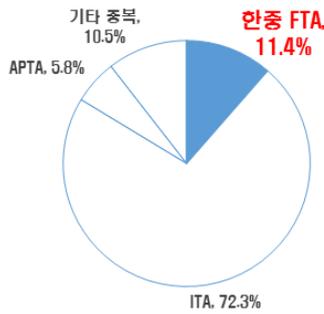
<각 관세 인하 품목의 한중 FTA 활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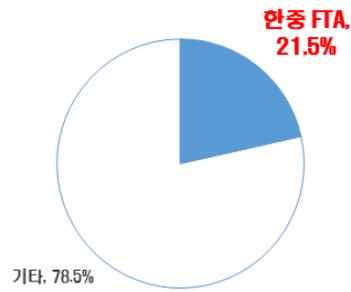
<잠정세율 인하 품목 (총 706개) >

<자동차/부품 MFN 인하 품목 (총 218개)>

\* 기타 중복지: 한중FTA, APTA, 잠정세율 등의 관세율 가운데 2개의 세율이 동일한 경우로서, 한중FTA로 인한 배타적인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음



〈ITA 인하 품목 (총 484개)〉



〈잠정/자동차/ITA 인하 전체 품목 (총 1,408개)〉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전략적인 접근 필요
  - 중국의 개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개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양허 가능 분야를 발굴
  
- 중국시장내 기업간 경쟁 더욱 치열
  - 중국의 시장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우수한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기업간 경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
    - \* 중국은 특히 우량 외자기업을 유치하여 개혁, 혁신, 질적 발전 등을 도모하는 메기효과를 기대
  - 미중 분쟁 해결 등을 위해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유리하게 개방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인 불이익 발생 우려
    - \*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 측이 향후 6년간 2000억달러의 미국 반도체 수입 제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14일)
    - \* 중국은 자동차, 금융 등 미국의 관심분야에 대하여 비교적 과감히 개방
  
- 중국의 성공적인 개방정책 추진을 통한 중국경제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 부실기업 정리, 산업구조 조정, 제도 개혁 등을 통해 중국경제의 질적 성장과 효율적인 경제운영 체제 확립

- 외자기업을 통한 메기효과, 기술혁신, 보다 효과적인 정부 지원 등으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한층 제고될 전망

● 미래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

- 글로벌화된 중국기업과의 경쟁은 중국시장 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
- 근본적인 산업 및 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며, 중국을 단순 수출 시장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식을 전환하고,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중국기업과의 협력과 공생을 모색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기회요인〉

1. 중국 수입시장 확대
  - 관세인하, 국제수입박람회 개최,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 등 수입단가 하락 및 소비 확대
2.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 기회
  - 관세인하에 따른 유망품목, 소비재, 미충분쟁으로 인한 틈새시장 발굴 가능
3. 관세 인하 비용의 효과적 활용
  - 홍보 확대, 가격 인하, 품질 제고 등 새로운 제품전략 모색
  - \* MFN세율과 달리 협정세율(FTA, APTA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필요
4. 관광 등 유망 서비스 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 합자 여행사의 중국인 아웃바운드 업무 허용 기대(2018년 자유무역시험구내 허용) 등
5. 국제수입박람회 활용
  - 시주석 중점사업으로 중국 전역에 홍보되고, 중국 및 글로벌 기업가 수 십만명 접촉 기회
6. 해외직구 시장 진출 확대
  - 허용품목 수 확대, 세제 혜택 증대 등 해외직구 시장 진출 가능성 제고
7.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에 따른 추가 기회 발굴
  - 외국인투자제한 완화 등 중국의 계속되는 개방 추세 가운데 기회 발굴 가능성 제고
8. 세계경제 안정 및 우리 수출 확대의 기반 제공
  - 개방을 통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경제 안정과 우리 수출 확대를 위한 기본 전제조건

〈위협요인〉

1. 한중 FTA 효과 감소
  - 각종 관세율 인하로 한국만 누리는 한중 FTA 활용도 감소
  - \* 잠정세율 시행, 자동차/부품 MFN 인하 등의 품목 1,408개의 한중 FTA 활용율 21.5%
2. 중국시장내 경쟁 치열
  -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우량 외자기업 진출 증가 및 기업간 경쟁 격화
3. 더 강해진 중국기업과의 경쟁 직면
  - 경쟁력이 제고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중국 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더욱 치열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

Trade Focus 2019년 4호

발행인 | 김영주

편집인 | 신승관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9년 3월 4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